호랑이 인간에게 외치다 "동물을 사랑하라"

"다양한 불살생법으로 참불자 되세요 어흥!"

어흥~! 불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2010년의 주인공, 호랑이입니다. 작년 한해 경제난으로 힘들고 슬픈 일, 반대로 즐겁고 기쁜 일들도 많았을 텐데 저의 용맹함 · 민첩함 · 신중함을 나눠 드릴테니 2010년 새해에는 모든 일 원만하게 이루어나가세요.

이에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불살생계(不殺生戒)만은 지켜달라는 겁니다. 생태파괴, 동물학대, 생명경시 등 파괴적인 행동을 자제해 주세요.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 지켜나간다면 경인년은 복을 짓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삽화 · 박구원

#불살생계 지키는 한해 되세요

작년 하반기 신종플루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신종플루가 swine(돼지를 뜻함) flu라 해서 돼지에서 기인한 신종인플루엔자라고 보도됐는데요. 멕시코 돼지농장 인근 지역에서 첫 발병사례가 발견됐다죠? 이 멕시코의 돼지농장은 미국의 대기업 공장형 가축농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점에서 광우병 파동에 이어 이번 신종플루도 결국 '인간'이 재앙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살생만으로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육식동물로 태어났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제가 배고플 때만 살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닭들을 평생 좁은 철망 안에서 몸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24시간 밝은 백열등 아래서 알 낳는 기계로 전락시켜버리는가 하면, 소 · 돼지 등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기르다가 도축장으로 끌고 가 극도의 공포심을 주고 도살을 합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모피코트나 겨울외투를 만들기 위해 밍크 · 여우 · 너구리 등을 산채로 가죽 벗기는가 하면 잔인하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용해 의학적인 실험을 행하고 생명현상을 연구합니다. 물론 인간들이 이러한 노력 끝에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긴 했죠. 허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편리함만을 위한 과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오계를 가르쳤는데 그중에서도 불살생계를 강조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나름대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즉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그러한 본질은 다른 힘에 의해 구속되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심 있게 따르는 불자라면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자신이 침해하거나, 또는 타의에 의해 그 존엄과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중단되는 것(죽음을 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생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미물 하나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생활터전을 없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겠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지금부터라도 불살생도를 지켜나가보아요~!

육식동물인 저도 살기 위해 살생합니다
동물복지 실천하는 사육프로그램 쓰세요

#동물보호 실천해요

자, 우리가 불살생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육식생활을 줄이고 모피 · 가죽제화 등을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식을 즐겼던 분들이라면 단번에 끊기는 힘들 수도 있고, 시중의 잡화상품은 대부분 가죽이라 불가피하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동물보호실천을 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동물복지'에 관심을

최근 농촌진흥청이 소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소의 웰빙지수' 관리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 농장동물 복지지침을 개발 중입니다. 진흥청은 '동물복지'의 개념을 통해 소가 행복해지면 육질이 좋아지고, 육질 좋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즐거울 수 있다는 뜻에서 제정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동물의 행복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끈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동물복지 실현 농가와 관련 상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물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국가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조악한 환경에서는 아예 닭과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돼 있으며 도살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국은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 동물복지 상태에 따라 인증하는 '프리덤 푸드(Freedom Food)'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994년에 제정된 '프리덤 푸드'는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로고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9가지 동물에 대한 표준기준을 갖고 있는 이 제도는 가축동물들에게 5가지 자유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5가지 자유는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생활의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인데요 이들 상품의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인증 기준이 철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호응이 좋다는데요.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동물복지제도를 실천하는 즉,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사육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인 동물보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별 것 아닌 실천이라고 생각할테지만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기업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돼 있지 않을까요?

#동물실험 하지 않는 상품 구매하기

의약품, 화장품 등은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전에 효력과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해 동물실험 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수 많은 동물들이 사용되며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도 정말 다양합니다. 임신한 동물의 자궁절개수술을 하거나, 장기간 잠을 안 재우고, 먹이와 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암 종양의 유발, 뇌손상의 유발 등 잔인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으~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지 않나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6억3000여 만 마리(초당 20마리)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에 의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동물실험에 쓰이는 동물들의 숫자는 해마다 30~40%씩 증가하고 있구요.

특히 화장품과 같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수많은 동물을 실험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은 EU가 2009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개발된 화장품 판매를 단계적으로 규제, 2013년에는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유럽, 북미, 일본, 중국 등 여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화장품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동물실험 대체법 연구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천해야할 방안은 동물실험 대체법을 연구하는 기업들을 독려해주고 기존의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아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적극 권유하는 바입니다.

#반려동물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현재 한국의 애견수는 15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는데 한 해 2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7마리 중 1마리는 기르다 버려진다는 것이죠. 한때 사랑받았던 애완견이 늙고, 병들고 또는 키울 여건이 안 된다는 핑계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동물은 유기견 보호소에 있다가 보호기간인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불자 여러분~! 내 자식이 아파서, 또는 바빠서 키울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버리지는 않잖아요? 개 뿐만 아니라 기타 반려동물들을 기를 때에는 책임감과 개인의 양심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 줬으면 합니다.

#자타불이, 동체대비로 동물과 함께 하시길

짧게나마 사람들이 동물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봤습니다. 별 것 아니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듯이 작은 힘이 하나 돼 동물과 인간 등 모든 중생이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타불이와 동체대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저희 호랑이를 비롯한 일체 생명을 헤아리고 소통하는 참 불자가 되시기를 앙망합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경 축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부설
옥천범음대학

2009년 동계방학 특강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어느 듯 시간의 강이 흘러서 한해의 마지막 달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선정 되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옥천범음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짓소리, 법고무,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개설 하여 강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으시길 바라며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짓소리 과정 (교수 김구해 스님, 중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유자)			
개 강 일	2010년 1월 4일 (월요일)	기 간	6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2월 11일 (목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법고무 과정 (교수 이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조교)			
개 강 일	2010년 1월 5일 (화요일)	기 간	4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1월 28일 (목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불교일용의식과정 (교수 조인각 스님, 중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개 강 일	2010년 1월 5일 (화요일)	기 간	6주(매주 2회)
종 강 일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수업시간	오후 3시~5시
수업요일	매주 화요일, 수요일		

* 주의 : 각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특강수강신청서 1부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문의 전화 02)392-3234 FAX 02) 392-3239

옥 천 범 음 대 학 장 이 기 봉 합장

공 고

고불총림 백양사 문도회의

삼보의 귀의하옵고,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문도회의를 개최합니다.
백양사 문도 여러분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목 : 고불총림 백양사 문도회의
▣ 일 시 : 2010년 1월 2일(토) 오후 4시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교육관
▣ 문 의 :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시 몽